

Global Strategist 김윤보 · 02)6923-7331 · younbokim@capefn.com

CAPE Global Issue

미국 민주당 슈퍼 화요일 경선: 바이든 후보 및 중도파의 판정승

- 미국 민주당 슈퍼 화요일 경선 결과: 바이든 후보 및 중도파 진영의 승리
- 바이든 및 중도파 승리 배경: 후보 단일화를 통한 중도파 지지 결집, 블룸버그 후보 선전 및 워렌 후보 부진
- 향후 경선 일정은 바이든 및 중도파 후보에 유리, 급진파 후보 단일화 등이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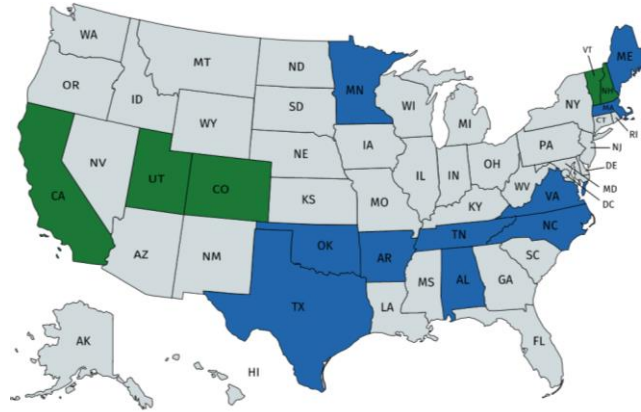
미국 민주당 슈퍼 화요일 경선 결과: 바이든 후보 및 중도파 진영의 승리

- 미국 현지시간 3일(화) 캘리포니아 및 텍사스 주를 비롯한 15개 지역에서 ‘슈퍼 화요일’ 경선이 진행. 전체 대의원 중 34.1%(1,357명)의 지지 후보가 슈퍼 화요일 경선을 통해 결정
- 경선 결과, 중도파 바이든 후보가 텍사스를 비롯한 남서부 지역을 장악하고 북부 일부 지역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현재까지 382명의 대의원을 확보, 급진파 샌더스 후보를 누르고 누적 대의원 수 기준 1위(435명)를 기록
 - 급진파 샌더스 후보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었던 캘리포니아주에서 상당수 대의원을 확보하는데 성공
 - 남서부 지역에서는 흑인 지지자들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중도파 블룸버그 후보와의 격차를 확대
 -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메인과 미네소타 등 북부지역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대의원을 추가로 확보
- 샌더스 후보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중서부 지역과 자신의 지역구인 버몬트 주 등 일부 지역에서 승리하는데 그침
- 블룸버그 후보와 급진파 워렌 후보 모두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두권 경쟁에서 탈락. 블룸버그 후보는 슈퍼 화요일 경선 직후 후보직 사퇴와 바이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함
- 중도파(바이든+블룸버그) 및 급진파(샌더스+워렌) 대결 구도 측면에서는 블룸버그 후보가 대부분의 경선 시행 지역에서 워렌 후보를 누르고 3위를 차지하면서, 중도파 진영이 이번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판정승을 기록

바이든 및 중도파 승리 배경: 후보 단일화를 통한 중도파 지지 결집, 워렌 후보의 3위 그룹 싸움 패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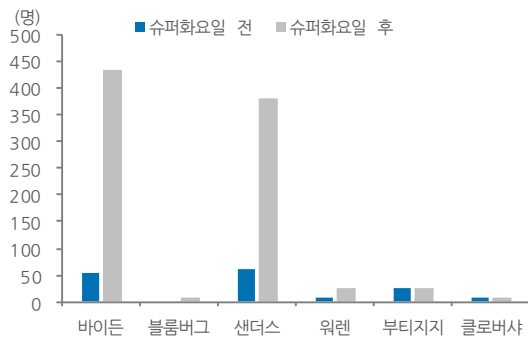
- 바이든 후보 및 중도파 진영의 승리 배경에는 1) 조기 단일화를 통한 중도파 지지세력의 조기 결집, 2) 워렌 후보의 3위 그룹 싸움 패배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2월 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경선 이후 중도파 부티지 후보와 클로버샤 후보는 경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바이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함. 슈퍼 화요일 경선 과정에도 참여하면서 바이든 후보 지지를 호소
- 부티지 후보 및 클로버샤 후보 사퇴로 4명이었던 중도파 후보 그룹은 바이든 및 블룸버그 2인 구조로 재편. 사퇴 후보들의 바이든 지지 선언은 중도파 후보 중에서도 바이든 후보로의 지지율 결집 및 반등으로 이어짐
- 민주당 경선에는 지역별 경선 과정에서 15% 득표율을 확보하지 못한 후보가 대의원 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15% Rule을 운영→(예시) 대의원 100명이 걸린 A지역에서 득표율 10%를 기록 할 경우, 배정 대의원은 10명이 아닌 0명
- 블룸버그 후보는 유타와 콜로라도 등 샌더스 후보 우세 지역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하며 샌더스 후보의 대의원 확보를 일부 저지. 반면, 워렌 후보는 대부분 지역에서 15%의 득표율 획득에 실패

그림1. 미국 민주당 슈퍼화요일 경선 결과



자료: mapchart.net, cnn,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주: 청색 표기 지역은 바이든 후보 우위, 녹색 표기 지역은 샌더스 후보 우위 지역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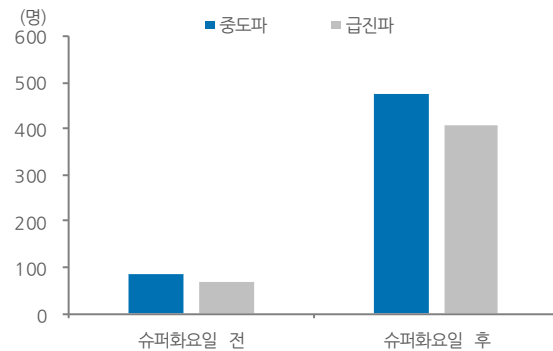
그림2. 미국 민주당 경선 확보 대의원 수 변화(후보별)



자료: CNN,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 부티지 및 클로버사 후보는 경선 후보직에서 사퇴

그림3. 미국 민주당 경선 확보 대의원 수 변화(성향별)



자료: CNN,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 중도파(바이든+블룸버그+부티지+클로버사) / 급진파(샌더스+워렌)

CAPE Global Issue | 미국 민주당 슈퍼 화요일 경선: 바이든 후보 및 중도파의 판정승

표1. 미국 민주당 슈퍼화요일 지역별 경선 결과

구분 (대의원수)	정치 성향별 득표율		경선 후보별 득표율				경선 전 여론조사 결과		
	중도	급진	바이든	블룸버그	샌더스	워렌	1위	2위	3위
앨라배마 (52명)	25명 (74.9%)	0명 (22.3%)	25명 (63.2%)	0명 (11.7%)	0명 (16.6%)	0명 (5.7%)	-	-	-
사모아제도 (6명)	4명 (49.9%)	0명 (0%)	0명 (0%)	4명 (49.9%)	0명 (0%)	0명 (0%)	-	-	-
아칸소 (31명)	13명 (57.1%)	6명 (32.4%)	12명 (40.4%)	1명 (16.7%)	6명 (22.4%)	0명 (10%)	-	-	-
캘리포니아 (415명)	86명 (39.2%)	135명 (45.6%)	86명 (24.9%)	0명 (14.3%)	134명 (33.6%)	1명 (12%)	샌더스 (29%)	바이든 (21%)	워렌 (16%)
콜로라도 (67명)	6명 (44%)	14명 (53.4%)	3명 (23.4%)	3명 (20.6%)	14명 (36.2%)	0명 (17.2%)	샌더스 (34%)	워렌 (20%)	블룸버그 (14%)
메인 (24명)	8명 (46%)	8명 (48.7%)	8명 (34%)	0명 (12%)	8명 (32.9%)	0명 (15.8%)	-	-	-
메사추세츠 (91명)	30명 (45.1%)	33명 (48.3%)	30명 (33.4%)	0명 (11.7%)	22명 (26.7%)	11명 (21.6%)	샌더스 (27%)	블룸버그 (18%)	워렌 (15%)
미네소타 (75명)	36명 (46.9%)	31명 (45.3%)	36명 (38.6%)	0명 (8.3%)	26명 (29.9%)	5명 (15.4%)	샌더스 (23%)	워렌 (11%)	바이든 (8%)
노스캐롤라이나 (110명)	37명 (56.1%)	15명 (34.6%)	37명 (43.1%)	0명 (13%)	15명 (24.1%)	0명 (10.5%)	샌더스 (26%)	바이든 (24%)	블룸버그 (15%)
오클라호마 (37명)	4명 (52.6%)	1명 (38.8%)	4명 (38.7%)	0명 (13.9%)	1명 (25.4%)	0명 (13.4%)	-	-	-
테네시 (54명)	22명 (57.1%)	11명 (35.4%)	22명 (41.7%)	0명 (15.4%)	11명 (25%)	0명 (10.4%)	-	-	-
텍사스 (228명)	49명 (48.9%)	42명 (41.2%)	48명 (34.1%)	1명 (14.8%)	42명 (29.9%)	0명 (11.3%)	샌더스 (29%)	블룸버그 (21%)	바이든 (19%)
유타 (29명)	0명 (34%)	3명 (50%)	0명 (17.1%)	0명 (16.9%)	3명 (34.6%)	0명 (15.4%)	샌더스 (28%)	블룸버그 (19%)	워렌 (15%)
버몬트 (16명)	5명 (31.4%)	10명 (63.3%)	5명 (22%)	0명 (9.4%)	10명 (50.7%)	0명 (12.6%)	-	-	-
버지니아 (99명)	66명 (63%)	30명 (33.9%)	66명 (53.3%)	0명 (9.7%)	29명 (23.1%)	1명 (10.8%)	바이든 (22%)	샌더스 (17%)	블룸버그 (13%)
전체 (1,334명)	391명	339명	382명	9명	321명	18명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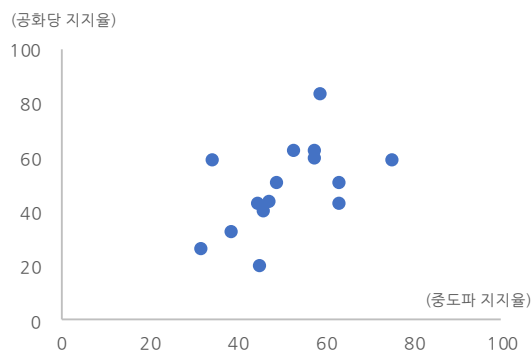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결과 종합,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 중도파(바이든+블룸버그+부티지+클로버사), 급진파(샌더스+워렌) / 주: 여론조사 결과는 출구조사 제외, 경선 시행 전 2주일 전까지 진행된 결과만을 표기

바이든 후보에 유리한 향후 경선 일정, 급진파 후보 단일화 여부가 변수

- 지역별 공화당 지지율(2018년 중간선거 기준)과 민주당 중도파의 경선 지지율(2020년 기준), 민주당 지지율과 민주당 급진파의 경선 지지율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됨. 이는 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일수록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급진파 보다는 중도파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3월 말까지 14개 지역(대의원 수: 1,104명)에서 민주당 경선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 해당 지역 중 대다수 지역은 공화당 지지율이 높은 보수 성향 지역으로 분류, 바이든 후보 및 중도 후보에 유리한 경선 구도가 지속될 전망
- 블룸버그 후보의 바이든 후보 지지 선언으로 중도파 후보는 바이든 후보 1인으로 압축, 바이든 후보는 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에서 치러지는 3월 잔여 경선에서 샌더스 후보와의 격차 확대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
→ 주요 관심 지역: 플로리다주 (3/17일, 바이든 후보 압도적 우위 지역, 샌더스 후보와의 격차 확대 여부에 주목)
- 바이든 후보 지지를 선언한 부티지(인디애나주) 후보 및 클로버사(미네소타주) 후보 모두 향후 경선이 진행될 러스트벨트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보유. 이들 후보의 지지 또한 바이든 후보에게 향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3/17일 경선 진행 예정인 일리노이(대의원 155명) 및 오하이오(대의원 136명) 지역 경선 결과에 주목
- 워렌 후보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인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바이든 후보에게 1위를 빼앗기면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축소됨. 워렌 후보의 경선 승리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샌더스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가 확대될 전망
→ 후보간 단일화가 현실화될 경우, 급진파 지지층 집결 효과가 샌더스 후보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코로나19 조기 진압이 실패할 경우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Medicare-for-all) 이슈가 부각되면서 샌더스 후보의 지지율 반등이 재개될 가능성에 주의. 미국 내 확진자는 전세계 대비 낮은 수준이나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
- 전국민 의료보험 의무화(Medicare-for-all)에 대해 정당별 대립 구도가 지속 중, 그러나 미국 내 확진자 증가시 찬성 의견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전국민 의료보험 의무화 찬성 유권자 수가 증가할 경우 샌더스 후보를 중심으로 한 급진파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OECD에서 집계한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 금액은 10,586달러로, 2위인 독일과 주요국 대비 큰 격차를 보임

그림4. 경선 지역별 공화당 및 중도파 지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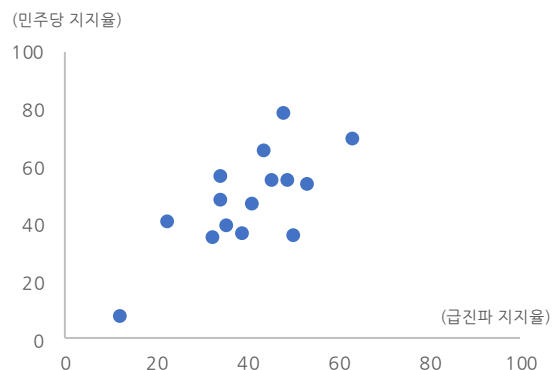


자료: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 중도파(바이든+블룸버그+부티지+클로버사) / 급진파(샌더스+워렌)

주: 공화당 지지율은 2018년 중간선거 당시 주별 하원 지지율 기준

그림5. 경선 지역별 민주당 및 급진파 지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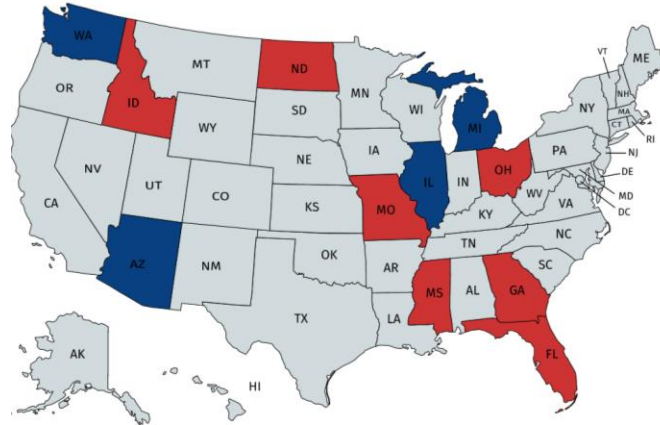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결과 종합,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 중도파(바이든+블룸버그+부티지+클로버사) / 급진파(샌더스+워렌)

주: 민주당 지지율은 2018년 중간선거 당시 주별 하원 지지율 기준

그림6. 미국 민주당 3월 경선 진행 지역(3/10~3/29)



자료: mapchart.net, cnn,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주: 적색 표기 지역은 보수 성향, 청색 표기 지역은 진보 성향 우위 지역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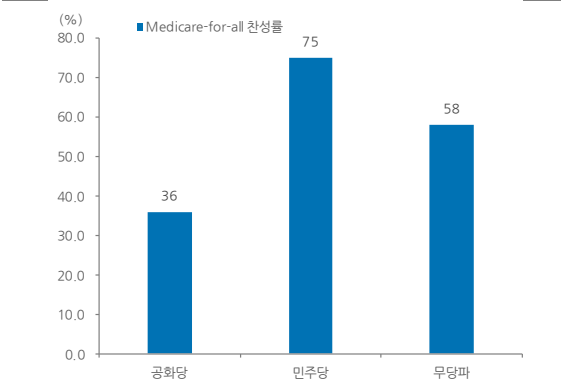
표1. 미국 민주당 3월 잔여 경선 일정(3/10일~3/29일)

구분	후보별 지지율				하원 득표율		하원 의석 수	
	바이든	블룸버그	샌더스	워렌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아이다호 (20명, 10일)	-	-	-	-	58.8	58.8	2	0
미시간 (125명, 10일)	29	11	23	7	44.65	52.33	7	7
미시시피 (36명, 10일)	-	-	-	-	50.18	42.47	3	1
미주리 (68명, 10일)	-	-	-	-	55.03	42.51	6	2
노스다코타 (14명, 10일)	-	-	-	-	60.2	35.6	1	0
워싱턴 (89명, 10일)	10	15	21	11	34.7	62.5	3	7
기타해외 (13명, 10일)	-	-	-	-	-	-	-	-
북마리나 (6명, 14일)	-	-	-	-	-	-	-	-
아리조나 (67명, 17일)	-	-	-	-	48.66	50.37	4	5
플로리다 (219명, 17일)	34	25	13	5	52.35	47.1	14	13
일리노이 (155명, 17일)	20	15	26	7	38.65	60.46	5	13
오하이오 (136명, 17일)	-	-	-	-	52	47.27	12	4
조지아 (105명, 24일)	-	-	-	-	52.27	47.73	9	5
푸에르토리코 (51명, 29일)	-	-	-	-	0	98.41	1	0

자료: 언론보도결과 종합,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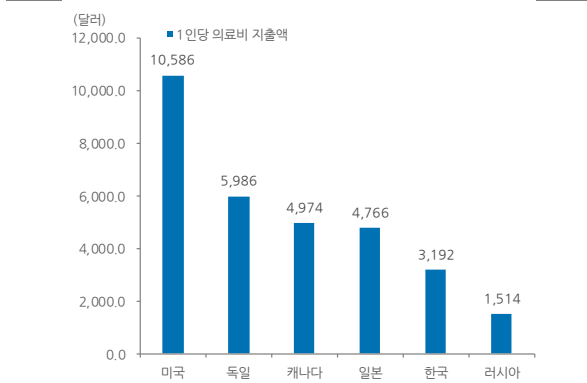
주: 중도파(바이든+블룸버그+부티지+클로버사), 급진파(샌더스+워렌) / 주: 여론조사 결과는 출구조사 제외, 경선 시행 전 2주일 전까지 진행된 결과만을 표기

그림7. Medicare-for-all 정치 성향별 찬성률



자료: KFF Research,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8. 국가별 1인당 의료비 지출액



자료: OECD,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